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한국 수산업 발전사

## 시험

송경은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혁신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시험**

**01** 하딘(Hardin)이 제시한 것으로, 자율갱신자원을 갱신률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설명한 대표적 용어는?  
10분

**정답** 공유지의 비극

**해설** 자율갱신자원은 산림, 목초, 어류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스스로 갱신, 즉 보충되며(갱신자원), 다만 재화의 사용에 배재불가능(비배제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적인 자율갱신자원을 개인이 이익에 따라 갱신률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02** 최근 오스트럼(E. Ostrom) 등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 주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핵심은, 공유자원의 내재적 특징인 '경합적 이용'에 따른 '( )'문제를 인류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괄호안에 알맞은 용어는?  
10분

**정답** 자원 고갈

**해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특징이며, 오스트럼은 이와 같은 재화는 특정인이 소유하기 보다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가 전체 구성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03 조선 후기 수산업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미역, 김 등 정착성이 강한 해조류가 자생하는 특정 해역에는 광전(藿田), 태전(苔田)으로 지칭되었으며, 토지와 유사한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 ② 조선 초에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국가 재정의 주된 재원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 ③ 『여지도서』로부터 확인되는 최대 해세 부과지역은 전라도 영광이다.
- ④ 어전매매문기에 첨부된 화회문기(和會文記)로부터 당시 어전이 상속이 가능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조선경국전』의 부전을 개괄한 총서 부문에 수록된 어업 관련 기사에 따르면 농상은 '부의 근본'으로 염, 철 산장, 수량 등은 '부의 보조'로 일컫고 있습니다. 조선 초에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국가 재정의 주된 원천이기보다는 보조적인 재원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04** 『한국수산지』에 수록된 구한말(舊韓末) 어촌에서 정치어장의 이용 형태에 대한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한말(韓末)에 방렴, 거망 등 정치성 어업이 활발하게 창설되고 있었다.
- ② 어장의 소유방식은 총유(總有), 개인소유(個人所有), 공동소유(共同所有)의 형태로 그 유형이 다양하다.
- ③ 마을 앞 어장은 촌민의 배타적 이용이 반드시 보장되었다.
- ④ 어장의 이용과 관련 규칙 생성 등 구성원 간 공유 인식이 형성된 기사도 발견된다.

**정답** ③

**해설** 전라남도 함경군 석계리에 대한 한국수산지 기사에는 “주민은 어업을 주로 하지 않으며, 무안부 해지면의 사람이 이곳의 지선에 어전을 설치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청하군의 경우, “농업에 겨를이 없어 오직 성어기에만 어업에 종사하며, 평상시에는 인촌에 어장을 임대”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즉, 마을 앞 어장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촌민만 제한하여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5** 일정 수면에 어구를 건설하거나 부설하여 일정한 어업기간 동안 정치(定置)하는 어업으로 대표적으로 어전어업이 속한 면허어업의 종류는?

10분

**정답** 제1종 면허어업

**해설** 식민지기 「어업령」에서 면허어업은 연안어장의 배타적 점유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면허어업은 제1종~제6종까지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제1종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에 어구를 건설하거나 부설하여 일정한 어업기간 동안 정치(定置)하는 어업으로 정의됩니다.





## 06 「어업령」과 해남윤씨가의 맹골도 소유 분쟁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1911년 「어업령」에서 전용어업제도가 도입되면서 섬주민과 해남윤씨가 간에 어업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 ② 맹골도는 조선시대부터 해남윤씨가 소유한 섬으로서, 해남윤씨가의 섬주변 채조 어업권에 대한 법적 소유는 「어업령」이 제정된 식민지기까지 지속되었다.
- ③ 전통적으로 어장을 토지에 부속된 산물로 보았던 시각이 「어업령」에 의해 토지와 분리된 소유권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 ④ 식민지기 「어업령」의 제6종 면허어업은, 1953년 공동어업, 1963년 제1종~3종 공동어업, 1995년 마을어업으로 개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답** ②

**해설** 맹골도는 「어업령」에서 전용어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업권의 소유가 법적으로 공동체에게 부여되는 총유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해남윤씨가의 어업권에 대한 관행적 소유관계는 식민지기 지속되었습니다.





**07**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로, 식민지기 동일한 제명을 가지고 가장 오래도록 발행한 자료로서 식민지 정책의 활동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당시의 법령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사료는?

10분

**정답** 조선총독부관보

**해설** 『관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입니다. 『조선총독부관보』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설치와 동시에 발행되어 1945년 8월30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08** 1914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 처분사항 통계표로부터 확인되는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1913~1921년간 권리가 유효한 어업권은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확장단계에 있었다.
- ② 1인 및 공동소유 어업권의 조선인과 일본인 비율은 7대 3으로 추정된다.
- ③ 어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 수준에 불과하지만, 식민지기 총유 형태의 어업권이 실재하고 있었다.
- ④ 어업권은 권리가 소멸한 어업권보다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의해 효력이 갱신된 어업권이 약 3.7배 많다.

**정답** ④

**해설** 1914~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 처분사항 통계표에는 어업권의 신규면허와 관련된 건이 4,662건, 어업권 포기, 어업권자의 사망, 어업권 취소,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어업권이 소멸한 건은 2,334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어업권의 효력이 연장된 것은 636건이었습니다. 즉, 권리 기간이 연장된 것보다 소멸한 어업권이 약 3.7배 많았습니다.





**09** 해방 직후 한국 어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어업으로 전후 재건기 당시 외화가득원의 역할을 한 것은?

5분

- ① 건착망어업
- ② 원양어업
- ③ 양식어업
- ④ 포경어업

**정답** ②

**해설** 당시 전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해 수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수산물의 수출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일례로 1958년 총 수출금액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25%를 기록하는 등, 수산업은 재건기 한국의 외화가득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원양어업은 주요 수출 산업으로 1958년~1975년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 한국 수출액의 5%를 차지하는 외화벌이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 10 한국 수산업의 발달과정과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2020년 기준 양식어업은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량에 근접한 수준이나 아직 못 미치고 있다.
- ②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논의하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및 과잉어획(Over-fishing) 유발하는’ 것이다.
- ③ 원양어업의 발전 단계는 해방 직후~1970년까지 개척기, 1971년~1992년까지 성장기, 1993년 이후 정체·쇠퇴기로 구분된다.
- ④ 2002년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정답** ①

**해설** 2006년 이후 양식어업은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양식어업 생산량은 1962년 18,709톤으로 한국 총 어업생산량의 4%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231만 톤으로 62.2%를 점유했습니다. 같은 해 일반해면어업의 점유율은 25%, 원양어업은 11.8%입니다. 전체적으로 근해 어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의 발달로, 한국 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2006년 이후 300만 톤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